백석대 육군 학군단

209 학군단
소식지 9월호



백석대학교 209
육군 학생 군사 교육단

“기억을 찾아 떠난 65기의 발걸음”





▲ 태국에서 관광지에서 찍은 65기 단체사진

육군학군단 65기 후보생들은 태국을 방문해 해외 전사적지 탐방하며 참전의 역사적 의미와 군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탐방은 후보생들이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한층 넓은 시야를 갖추는 계기가 됐다. 타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고 현지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여러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자세를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낯선 환경 속에서 주어진 일정과 활동을 스스로 수행하며 판단력과 적응력을 높였고, 이를 통해 앞으로 장교로서 갖춰야 할 폭넓은 사고와 주어진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었다.

현지의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새로운 환경을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예절을 직접 접하며 우리와 다른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배웠다. 이번 경험은 앞으로 장교로서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후보생들에게 글로벌 역량과 열린 사고를 함양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장교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마련했다.

▼스포츠건강관리전공 65기 김형규 후보생
“처음에는 해외에서 전사적지를 직접 둘러본다는 것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지만, 막상 현장을 방문해 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책이나 수업을 통해 접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직접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으니 당시 상황을 조금이나마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과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역사와 국가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해외전사적지 탐방에서 느낀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훈련과 생활에도 책임감 있게 임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후보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힘찬 구령으로 시작된 9월의 아침”
서로를 의지하며 전진 해온 육군학군단의 뜨거운 여정



▲ 체력단련 마무리 구호를 외치는 65기 모습



▲ 윗몸일으키기를 하는 66기 모습

개강과 함께 육군학군단 후보생들의 활기찬 아침이 다시 시작됐다. 후보생들은 이른 아침부터 체력단련에 참여하며 학기 첫날부터 성실한 훈련 모습을 보였다. 규칙적인 체력단련을 통해 체력을 기르는 것은 물론, 후보생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과 단결력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개강은 후보생들에게 단순히 새로운 학기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학생으로서의 학업과 ROTC 후보생으로서의 군사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일정의 시작이기도 하다. 강의실에서는 학업에 집중하고, 군사교육 현장에서는 장차 장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세와 군사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후보생들은 시간 관리와 자기관리를 배우며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고 있다.

후보생들은 오늘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지금 흘리는 땀과 반복되는 훈련의 시간이 앞으로 군 조직을 이끌어갈 장교로서의 기본을 만들어 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오늘 흘린 땀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복되는 체력단련과 군사교육 속에서 쌓인 경험은 후보생들의 자신감과 책임감으로 이어지고,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세는 앞으로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더라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이 된다. 작은 구령 하나, 한 걸음의 발걸음, 마지막까지 이어가는 한 번의 동작까지도 장교로서의 기본을 완성 해가는 과정인 셈이다.

▼스포츠경영전공 66기 정서은 후보생 소감

“2학기 개강을 맞아 육군학군단 후보생들이 아침 체력단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힘든 훈련에도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땀 흘리는 과정에서 후보생들의 단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력단련을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는 육군학군단이 되겠습니다.”

“책임과 솔선수범의 자세 더 나은 학군단을 향해”
백석대학교 육군학군단 임명식 및 성적 우수자 상장 수여식




▲ 임명식 및 성적 우수자 상장 수여식 받는 모습

백석대학교 학군단은 9월 8일, 지휘근무자 임명식 및 성적 우수자 상장 수여식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지휘근무자로 임명된 후보생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평소 모범적인 생활과 성실한 자세로 학군단 발전에 기여한 성적 우수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휘근무자로 임명된 후보생들은 각자의 직책에 대한 책임감을 되새기며, 후보생들을 이끌고 학군단의 발전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 후보생들에게 신뢰받는 리더가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진행된 성적 우수자 상장 수여식에서는 평소 성실한 태도와 모범적인 생활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후보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하며 그 노고를 격려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후보생들은 책임감, 리더십,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백석대학교 학군단은 후보생들의 올바른 품성과 리더십을 함양하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강한 학군단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경찰범죄수사학전공 66기 구본주 후보생 소감
“지휘근무자로 임명되면서 새로운 직책을 맡는 것은 후보생들을 이끌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후보생들에게 신뢰받는 지휘근무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적 우수자들에게 상장이 수여되는 모습을 보며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나 역시 학업과 훈련 모두에 더욱 성실하게 임하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후보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배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후배에게 전하는, 학군단 이야기




▲ 육군학군단 후보생들이 67기, 68기를 모집하고 있는 사진

육군 학군단은 대학생활과 군사교육을 함께 경험하며 미래의 장교로 성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단순히 군사훈련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리더십과 책임감, 협동심을 배우며 다양한 활동과 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된다.

특히 홍보에 참여하는 후보생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학군단 생활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학군단에 지원하면서 느꼈던 고민부터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경험한 변화, 선후배들과 함께 활동하며 얻은 경험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교라는 진로에 관심은 있지만 학군단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학군단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생들의 이러한 홍보 활동은 학군단을 알리는 동시에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학군단의 길을 선택하고 경험한 후보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생들에게 도전의 기회를 알리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군단의 전통과 경험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후보생들은 대학생들에게 학군단이라는 선택지를 알리고, 장교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경찰행정학전공 66기 한시현 후보생 소감
“학군단 모집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학군단을 다른 학생들에게 직접 소개해보는 뜻깊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학군단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학군단의 장점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한 학군단을 직접 홍보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으며 앞으로도 학군단에 관심을 갖는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